

가즈오 이시구로의 『클라라와 태양』에 나타난 공동선으로서의 ‘사랑’

김철수 조선대 교수

I. 들어가는 말

과학기술과 다양한 문화적 매체와 콘텐츠의 발달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인간 삶의 편리성은 더할 나위 없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 결과로 디지털화된 세계는 ‘나-중심’의 사회로 변모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소속과 공동체의 개념을 발생시키고 있다(Schwab 94). 즉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근접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은 인터넷과 랜선의 영향으로 그러한 지리적 한계를 초월하여 비접촉으로 연결되며, 지극히 개인적인 가치와 관심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성으로 변모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여러 해 동안 삶의 여러 영역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물리적인 이동과 접촉을 꺼려왔던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이라는 식물 속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스며들어 있는”¹⁾ 각종 디지털 기술문명의 혜택 속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구매 행위와 학습, 회의, 그리고 심지어 예배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가져다줄 불편과 불안과 불만을 피하고, 오직 내게 편리한 시간에 내게 필요한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의 접촉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 1:28)고 지시하셨던 문화명령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게 된 오늘날의 세계는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에 매몰되어, ‘규칙을 따라 함께’ 살지 못하고, 오직 ‘개인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 규칙마저 파괴할 수 있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삶의 터전으로 왜곡되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의 추세를 가속화 하는 요인들은 인공지능, 디지털, 로봇, 그리고 신경과학과 생명과학 등, 소위 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항목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기술들은 인간의 수명연장이나 삶의 질 제고의 측면에서 ‘인간의 삶을 더욱 인간답게’ 개선 시켜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으로 많은 사람의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이 기술들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경제 구조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악한 성품으로

1) Rus, Daniela. “The Robots Are Coming: How Technological Breakthroughs Will Transform Everyday Life.” Foreign Affairs. June 16, 2015.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15-06-16/robots-are-coming>

말미암아 오히려 ‘인간을 더욱 비인간적인 존재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인간의 친구로 개발된 인공지능 로봇(Artificial Friend)인 클라라(Klara)라는 로봇을 주인공으로 하는, 일본계 영국인 소설가인 가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의 최근 소설 『클라라와 태양』(Klara and the Sun, 2021)에 대한 꼼꼼한 독서를 통해, 기술문명의 발달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사회 환경과 인간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의 양상을 탐색해 보고, 작품 속의 함의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요컨대, 위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다줄 미래 사회를 그린 작품과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또 하나의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선, 공동선, 사랑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7) 그 지으신 인간을 이전에 지으셨던 자연 속으로 보내셔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신 후,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모양과 성품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본래 성품은 ‘선함’에 가까웠다는 말이다.

동양철학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진유가의 대표 학자인 공자(孔子)는 『論語』의 『陽貨篇』 제2장에서 “성품은 본래 서로 가까우나 습관에 따라서 멀어진다(性相近也, 習相遠也)”고 가르쳤고, 그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킨 맹자(孟子) 역시 자신의 제자였던 고자(告子)와 인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는 물이 없듯이 그 본성이 선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孟子』, 『告子』 上 2章)고 말하며 소위 성선설(性善說)을 주창하였다. 이후 중국 남송의 유학자인 왕응린(王應麟 1223-1296)은 『삼자경(三字經)』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사람의 처음 본성은 원래 선하여 서로 비슷하나 습관에 따라 차이가 생겨난다(人之初 性本善, 性相近 習相遠.)”(왕응린 24)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러한 인간 본래의 선한 성품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창 3:4) 되기를 원하던 인간의 욕망과 교만에 의하여 죄와 연합되고, 결국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전 7:20)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롬 3:23)게 된다. 그런가 하면, ‘인,’ ‘의,’ ‘예,’ ‘지’의 바탕이 되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

(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孟子』, 「公孫丑」 上 6章)고 말할 정도로 인간의 선한 성품을 신뢰했던 맹자는 사람의 선한 성품이 타락하게 되는 네 가지 경우를 밝힌 바가 있는데, 그것은 물질적 욕심에 빠진 경우를 일컫는 '물욕함닉(物慾陷溺), 사람의 성장환경을 의미하는 '세(勢), 반성과 정리의 시간인 밤의 시간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를 뜻하는 '야기망(夜氣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준 선한 마음을 놓아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방심(放心)'이다.

성경은 이와 같은 '선' 혹은 '선함'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전하고 있다. 미가 선지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라고 설교하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한다. 또한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일화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마 19:17) 또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막 10:18)라고 말씀하시며, '선함'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약 성경 대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울의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모든 '선함'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요컨대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이나 “철학 도덕적 생활의 최고의 이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의 '선'이나 세상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선'은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배우고 따르며 성취해야 할 최고의 덕목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그 '선함'이나 '선'이 '이익'에 기반한 것인가 아니면 '사랑'에 기반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위 '공동선' 또는 '공공선'이라는 주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의 '지식 사전'은 공동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모든 이에게 두루 미치는 선(善) 즉,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善). 공익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명 '공공선'(公共善), 혹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public interest)이라는 점에서 '공공복지'(公共福祉)라고도 한다. 이 같은 공동선의 추구는 다양한 구성원과 복잡한 사회 체계를 구축한 현대 사회를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원리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존적 존재(共存的 存在)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공익(公益)보다 사익(私益)을 앞세우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고 그 사회는 와해되고 만다.

하지만, 공동선을 지나치게 앞세워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변질된 집단주의나 권력 지향주의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공동선이라는 가치의 추구도 결국은 인간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존중은 물론, 모든 구성원이 다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²⁾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선’이나 ‘선함’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혹은 사랑하기 때문에 추구하게 되는 것인가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체의 유익을 위한 생각이나 행동보다는 소위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제 아래 개인의 유익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게 증대되어, 결국에는 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전체의 질서가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역으로, 소위 ‘권력’을 소유한 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가 ‘공익’이라는 미명을 빙자하여 엄청난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근대 이후, 이성과 지성으로 무장한 시민계급의 발흥으로 말미암아 외형적이고 노골적인 권력의 폭력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첨예하게 발달한 과학기술과 지식정보 산업은 이미 이 세계를 양극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비인간화를 부추기는 사회와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충격,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극단적 디스토피아에 대한 불안이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소설작품 속에도 다양한 종류의 ‘선’이나 ‘선함’이 존재한다.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져서 자녀의 육체적 약점들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똑똑한 구성원으로 키울 수 있고, 최첨단 원격 학습을 통해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로봇의 완벽한 구현으로 말미암아 삶의 질을 최고조로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외형적인 발달이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계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사람들, 치명적인 환경의 오염, 인간 같은 비인간과 비인간적인 인간들 사이의 괴리와 간극, 그리고 모두에게 닥치는 비극적인 결말이 존재한다. 이처럼 ‘이익’(interest)을 기반으로 한 왜곡된 형태의 공익(the public interest)과 사익(the private interest)의 흔적들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이 작품을 직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외형적 직물의 틈새로 사물과 사람에 대한 ‘관심’(interest)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로봇인 주인공 클라라의 집요한 서사가 하나의 인상적인 수를 놓으며 작품을 장식하고 있는데, 그 장식은 결국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인류의 생명을 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꽃으로 피어나게 된다.

III. 본론

작품에 대하여

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74926&cid=50762&categoryId=51365>

2005년에 발표되었던 복제인간을 주인공으로 한 장편 『나를 보내지 마』(Never Let Me Go)와 더불어 소위 ‘SF 소설’이나 ‘포스트휴먼 소설’이라는 주제로 연구되고 있는 『클라라와 태양』은 현재의 과학의 발달을 바탕으로 예측되는 미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상과학소설’ 또는 ‘과학소설’이라고 여겨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마치 애완동물처럼 인간 사회에 새로운 반려자로 등장하게 된 고도의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성 자체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포스트휴먼 소설’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그의 전작인 『창백한 언덕의 풍경』(A Pale View of Hills 1982)이나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 1986),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세간의 관심뿐 아니라 다양한 수상 실적까지 안겨준 바 있는 『남아 있는 나날』(The Remains of the Day, 1989), 그리고 직전 작품이었던 『나를 보내지 마』(Never Let Me Go, 2005)에 이르기까지의 이시구로의 문체적 특성은 불편한 진실에 대한 “모호한 기억”(Swift 1989, 23)을 바탕으로 “사실상 결정적 수치를 숨기”(Wong 1995, 144)거나 “진실을 억누르고 회피”(Lodge 1992, 155)하려고 애쓰며,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마저 억누러야만 하는 인물들”(Shaffer 9)이나 “역사의 외상에 무겁게 짓눌린 주인공들”(Holmes and Rich 8)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경우 이시구로는 사실상 전작의 주인공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로봇인 클라라를 통해 “AI가 인간을 보완하고, 돕거나, 심지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지만 결코 의도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면서, 인간보다 더 큰 공감 능력을 소유한 “휴머노이드 주인공”을 창조했다.(Feng 56-57) 인간의 정체성이나 자유, 감정, 가치, 그리고 그 삶을 기계에게 빼앗기는 “기술공포증”(Dinello 2)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과학소설과는 달리 이시구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바탕으로 “미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 존재, 그리고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Meija 303) 요컨대 『클라라와 태양』은 고도의 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다운 믿음, 희망, 사랑, 그리고 충성심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안드로이드와, 그와 반대로 이전보다 더 외롭고 절망적이며 변덕스럽게 변한 인간들 사이의 아이러니컬한 대조와 더불어 그 두 존재 모두에게 “특별한 자양분”을 제공하는 태양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한 가상의 디스토피아를 전개하고 있다.

등장인물에 대하여

클라라

『클라라와 태양』의 내레이터이자 주인공인 클라라는 독특하게 지각적이고 관찰력과 이해력

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지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다. 조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존재에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희생할 만큼 충성스럽다.

조시

친절하고, 조속하며, 성숙한 조시는 소위 ‘향상’이라는 유전자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이다. 클라라는 소설의 마지막에서 조시의 내면에 반드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녀의 영혼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음으로써, 조시가 클라라, 릭, 그녀의 부모, 그리고 가정부인 멜라니아로부터 사랑을 전달하는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크리시

조시의 엄마 크리시는 아마도 클라라와 태양에서 제시되는 가장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조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헌신하지만, 그 모든 헌신의 기저에는 자신의 욕망이 존재한다. 자녀들을 좀 더 완벽하게 키우기 위해 유전자 편집이라는 위험을 감수한다. 그녀는 조시를 사랑하지만 그녀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고, 카팔디 씨라는 남자에게 위탁하여 조시를 닮은 로봇에 클라라의 지능을 삽입하여 제 2의 조시를 만들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카팔디 씨의 설계로부터 클라라를 보호하게 된다..

릭

릭은 엄마 헬렌과 함께 조시와 가깝게 살고 있는 조시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릭은 결코 향상을 원하지 않으며, 그는 조시가 향상되는 것이 그녀를 변화시킬 것이고, 다른 향상된 부자들처럼 버릇이 없고 가식적이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릭은 때때로 질투심으로 인해 행동하며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조시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릭은 향상이라는 자본주의 우생학에 반대되는 인간성에 내재된 선함의 상징으로 작용한다.

헬렌

릭의 어머니 헬렌은 아들인 릭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릭이 아틀라스 브루킹스라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설득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녀는 무뚝뚝하고, 정직하고, 괴팍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릭의 성공을 돕는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다.

폴.

조시의 아버지인 폴은 재능 있는 공학자이지만, 그의 직장에서 "대체"되었고, 지금은 다른 실업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조시를 사랑하고, 무엇이든 시도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쿠틀 머신'을 방해하기 위해 클라라를 돕는다. 그는 크리스보다 카팔디에게 더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카팔디의 이성적인 추론에 동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털어놓는다. 크리스나 헬렌처럼, 폴도 조시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카팔디 씨

이 작품의 빌런으로 등장하는 카팔디 씨는 소설의 디스토피아적인 특징인 유전자 편집과 조시의 안드로이드 복사본을 만들 계획과 관련된 냉철하고 과학적인 추론을 보여준다. 그의 프로젝트가 결코 결실을 맺지는 못하지만, 그는 프랑켄슈타인 박사처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려고 시도한다. 카팔디 씨는 크리스, 폴, 클라라에게 그의 프로젝트는 무해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보적인 태도도 구식이고 감상적인 태도의 잔재일 뿐이라고 설득한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그의 주장은 설득력 있고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의 태도는 인간성과 믿음에 대한 포기를 상징한다.

3. 작품의 줄거리

『클라라와 태양』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부유한 가족들은 자녀들이 학업 성취도를 제고를 위한 유전자 변형의 과정인 “향상”(lift)이라는 절차를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 모든 수업은 “오블롱”(Oblong)이라는 온라인 장치를 통해 튜터에게 개인 교습으로 이루어지므로, 아이들은 교제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따라서 부유한 가족들은 자녀들의 소통 활동과 개인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안드로이드 AF(Artificial Friends)를 구입한다.

이 소설은 주요 서술자인 클라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로봇이 그녀의 친구인 로사(Rosa)를 비롯한 다른 안드로이드들과 함께 자신을 선택해 줄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AF 상점에서 시작된다. 클라라를 비롯한 안드로이드들은 매니저의 지시와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자양분이 되는 태양 빛을 받을 수 있는 상점의 창문을 교대로 차지한다.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클라라는 인공지능 로봇이면서도 독특하게 관찰력이 뛰어나고 감정적인 신호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데 능숙하다. 그러한 클라라의 눈앞에 두 가지의 중요한 영향력이 등장한다. 그중 하나는 자신의 동력원이자 죽은 사람을 살리는 “특별한 자양분”(『클라라와 태양』 63)을 가진 존재이며, 더 나아가 그녀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태양이고, 다른 하나는 클라라가 “공해를 물리치는 기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공해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기계”인 것으로 알려진 “쿠팅스 머신”이다 (『클라라와 태양』 49).

클라라가 전시되어 있는 AF 매장에는 그녀를 비롯한 B2 3세대 계열의 로봇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태양광 흡수 문제가 있는 기종”(『클라라와 태양』 16)으로 알려져 있어서, 곧 이들을 대체할 B3 계열의 로봇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미 판매되어 주인을 따라 산책을 나온 로봇들은 매장에 전시된 자신들보다 더 신형인 로봇들과 비교되어 교체될까 두려워 “부자연스럽게 걸음을 재촉하고 일부러 [매장]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고”(『클라라와 태양』 31)하는가 하면, 매장 내에서는 새로 출시된 B3 계열의 로봇들이 “손님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다른 그룹에 속한 다는 것을 보여 줄 의도”(『클라라와 태양』 60)로 이전 버전의 로봇들과 거리를 두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클라라는 ‘향상’의 과정 중에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된 조시(Josie)라는 소녀에게 판매된다. 조시의 어머니인 크리스시(Chrissy)는 이미 향상의 부작용으로 큰 딸을 잃고 그녀의 쌍둥이 동생인 조시와 함께 살고 있으나, 조시 역시 같은 운명을 기다리는 상황이며, 그때를 대비하여 조시를 대신할 목적으로 클라라의 구매를 허락한 것이다.

조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클라라는 역시 변화된 환경과 새로 만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게 된다. 친절하고 개방적인 조시는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매일 저녁 일몰을 보고, 딸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크리스시와 조시 사이에는 복잡한 기류가 흐르고, 클라라를 보호하는 임무를 띤 가정부 멜라니아는 클라라로 인해 “조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우려”(『클라라와 태양』 80) 때문에 사사건건 그녀를 위협하며 못마땅해 한다. 조시의 방에서 내려다보이는 맥베인(McBain)씨의 헛간을 태양이 밤에 휴식을 취하는 장소라고 믿게 된 클라라는 매일 그 헛간을 바라본다.

클라라는 조시의 가장 친한 친구인 릭(Rick)을 소개받게 되는데, 그는 엄마의 소망에 따라 향상의 절차를 경험하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인물이다. 크리스시는 자신의 집에서 가끔 향상된 아이들의 사교 모임인 “교류 모임(interactions)”을 주최하는데, 엄마의 의도로 진행되는 모임에 대하여 조시는 “끔찍한 파티라서 릭이라도 꼭 와줬으며 좋겠어”(『클라라와 태양』 101)라고 말하며 릭을 초대하며, 그 모임의 분위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그 사회의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류층 아이들과 그 엄마들의 모임인 교류 모임에서 어른들은 “저 아이 가족은 그냥...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잘못될까 봐 겁이 났나?”(『클라라와 태양』 106)라고 말하며 향상에 참여하지 않은 가정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통해 차별의식을 보여주고 있고, 아이들 역시 자신들과 생활 환경과 사고 방식이 다른 릭을 무시하고 조롱하는가 하면(“와! 재가 영화를 좋아한대!” (『클라라와 태양』 113)), 클라라를 소개받은 후 그녀를 놀리고 방을 가로질러 던지겠다고 위협하기도 한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딸에게 조시의 엄마인 크리시는 “잘 들어. 엄마를 위해서 좋아져야 해. 엄마 말 듣고 있어?”(『클라라와 태양』 132)라고 말하면서, 딸의 건강에 대한 자신의 염려가 딸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밝힌다. 그후 조시와 함께 모건 폭포(Morgan's Falls)에 가기로 했던 크리시의 계획이 조시의 건강 때문에 무산되고, 조시는 클라라에게 옛날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가게 될 모건 폭포에 대해 소개한다. 사진을 보던 도중 클라라는 항상 과정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조시의 언니인 샬(Sal)에 대해 알게 된다.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조시가 다시 계획된 모건 폭포로의 여행에 동행하지 못하게 되자 크리시는 대신 클라라를 데리고 가게 되고 그 도중에 다시 한 번 조시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한다.

“항상 저런 식이야. 감정을 가지고 놀지.” 그러다가 잠시 뒤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거야. 하지만 안 그러면 어떻게 배우겠어? 우리한테도 감정이 있다는 걸 배워야 해.” 한참 뒤에는 이랬다. “나라고 개 두고 나가고 싶겠어? 날이면 날마다?”(『클라라와 태양』 149)

이처럼 같은 질병으로 사망했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딸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감정에 사로잡힌 크리시는 다시 “아무 감정이 없는 게 가끔은 좋을거야. 네가 부럽다.”(『클라라와 태양』 150)라고 다시 한번 진심을 토로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클라라는 “저에게도 여러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관찰할수록 더 다양한 감정이 생겨요”(『클라라와 태양』 150)라고 말하면서 인간과 가까운 자신의 면모를 드러낸다.

크리시는 클라라와 함께 공원으로 가던 길에 목격한 “금속 상자로 이뤄진 마을 같은 것”(『클라라와 태양』 151)에 대하여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좋은 곳”(『클라라와 태양』 152)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그곳은 기계의 도입으로 대량 실직을 유발시킨 장소이며, 클라라의 눈에는 “끔찍한 쿠팅스 머신이 떠올라 공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클라라와 태양』 152)을 유발시키는 곳이다.

공원에 도착한 크리시는 클라라에게 “조시가 없으니까, 네가 조시가 되어주면 좋겠어”(『클라라와 태양』 158)라고 말하며 클라라를 구매한 자신의 본래 목적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는데, 특별한 순간에 여덟 개의 상자 모양으로 분리되는 클라라의 시력은 “어떤 상자에서는 눈이 잔인하게 웃는데, 바로 옆 상자에서는 눈에 슬픔이 어려 있었다”(『클라라와 태양』 159)는 사실을 간파한다. 친엄마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조시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클라라는 “조시가 곧 좋아질 거”(『클라라와 태양』 165)라는 기대를 표명하게 되고, 그 희망의 근거를 묻는 크리시에게 “제 생각에는..... 그냥 희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희망이에요.

저는 조시가 곧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클라라와 태양』 165)라고 말하며, ‘기대’에서 ‘희망’을 거쳐 ‘믿음’으로 이어지는 의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반면 크리시는 클라라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똑똑한 에이에프”(『클라라와 태양』 165)라고 칭찬하면서도, “네가 옳을지도”(『클라라와 태양』 165)라고 말하며 불확실한 믿음을 보여준다.

조시가 점점 병이 심해지자, 릭은 그녀를 위문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여 “말풍선 게임”(『클라라와 태양』 179)을 함께 하게 된다. 조시가 인물 그림을 그리면 릭은 그들의 생각으로 말풍선을 채우는 게임인데, 그 게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두 친구는 점점 자신의 현재 상황과 직면하게 된다.

한 번은 이렇게 그림을 정리하면서 종이 한 장을 집어 들었는데, 스치듯 보고도 그림 중심에 있는 인물 두 명이 교류 모임에 왔던 팔이 긴 여자아이와 미시 자매라는 걸 알았다. 물론 여러 가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았지만 조시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렸는지는 분명했다. 그림 앞쪽에서 자매가 심술궂은 표정을 하고 있고 대강 그런 다른 얼굴들이 그 주위에 있었다. 가구 같은 것은 그리지 않았지만 배경이 개방 공간임을 알았다. 자매 사이 빈틈에 조그맣고 형체가 없는 어떤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 위에 커다란 말풍선이 없었다면 그런 게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클라라와 태양』 189)

사실 이 그림은 얼마 전에 있었던 “교류 모임” 『클라라와 태양』 102)의 장면을 그린 것인데, 조시의 눈에 향상되지 않은 릭은 향상된 아이들 사이에서 지극히 존재감이 없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었고, 그 그림에 달린 말풍선에 릭은 “향상된 애들은 나한테 형체가 없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있어. 그냥 감춰놓을 뿐이야. 왜냐하면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클라라와 태양』 165)라고 기록하여 둘 사이의 상당한 의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클라라는 그 두 사람의 차이를 애써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소위 ‘향상’에 대한 분명한 의견의 대립을 보인 후 그들은 사이가 틀어지게 된다.

이후 조시는 사과 의미로 그림 한 장을 들려 클라라를 릭의 집으로 보내게 된다. 릭의 집에서 클라라는 릭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헬렌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요컨대 릭과 함께 향상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조시는 그의 어머니가 릭과 함께 있기 위하여 아들의 향상을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향상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여 병을 얻은 조시를 걱정하는 릭은 그녀의 어머니의 ‘과육’을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두 사람의 비판은 서로를 위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말했듯이 조시의 병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조시가 세상을 떠나게 될 만큼 약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조시의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나는 아직 어른들이 고려해 보지 않은

조시가 좋아질 방법이 있다고 믿어요. 또 지금 상황이 다급하니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무례하게 보이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더라도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시간일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여기 온 것은 물론 중요한 심부름 때문이지만, 릭한테서 유용한 조언을 얻기를 기대하기도 했어요.”(『클라라와 태양』 213-14)

사실상 인공지능 로봇인 클라라의 견해도 조시를 걱정하는 릭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변경하려 하지 않는 릭과는 달리 클라라는 더 적극적으로 조시를 도우려고 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자양분을 공급한다고 믿고 있는 태양이 조시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고 있는 태양을 찾아 “풀밭을 가로질러 맥베인 씨의 헛간에 가고 싶어”(『클라라와 태양』 214)한다.

릭과의 대화중 클라라는 그의 어머니 헬렌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클라라가 아들이 자신과 집을 떠나서 향상되지 않은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인 아틀라스 브루킹스(Atlas Brukings)에 지원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게”(『클라라와 태양』 228) 설득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외로움을 가져올 방법을 간절히 원하는 헬렌의 태도에 놀랐다고 말한다 (『클라라와 태양』 229).

아들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숭고해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누를 정도라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닐거야.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삶에서 차라리 외로움을 택할 이유는 그것 말고도 많아.(『클라라와 태양』 230)

작품 속 시대의 ‘공공선’이라 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문명의 발달과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소외된 인물들의 생각과 태도는 주인공 화자인 클라라뿐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작품 전체의 중심에 흐르는 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의 진실을 숨기고 가족을 희생시키며, 이웃을 기만하는 조시의 어머니 크리시 같은 인물과 서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릭과 헬렌, 그리고 그 중심에서 참사랑을 배우며 실천해 가는 클라라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의식의 다양한 접촉과 교류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점점 더 명확해진다. 사실 릭은 혼자 있게 될 어머니를 걱정하느라 집을 떠나 대학에 가는 것을 꺼리고 있고, 헬렌은 자신의 의도 때문에 향상을 받지 못한 아들에게 그나마 향상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외로움을 감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클라라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자신이 태양의 안식처라고 믿었던 맥베인 씨의 헛간으로 찾아가려고 하지만, 복잡한 오솔길에서 길을 잃을까봐 그녀를 걱정했던 릭은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눅 10:25-37)처럼 그녀가 가는 길을 찾아와 그녀를 업고 헛간으로 향한다. 결국 그 헛간이 태양의 최종 휴식처가 아니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에

들르는 것처럼”(『클라라와 태양』 240) 매일 저녁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클라라는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태양이 지나가는 시간에 기도를 시작한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주제넘고 무례한 행동인지 압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고 제 부탁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아주 넓은 마음이 있으니 한순간만 멈춰서 제 제안을 한 번 들어 봐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요, 당신을 특별히 행복하게 만들 만한 일. 만약 제가 그런 일을 해낸다면 그때는 보답으로 조시에게 특별한 자비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거지 아저씨와 개에게 그랬던 것처럼?”(『클라라와 태양』 246)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돌봐야 할 조시의 건강을 회복시킬 힘이 태양에게 있다고 믿은 클라라는 그 태양이 치유력을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쿠팅스 머신을 파괴하여 태양을 기쁘게 하고, 그의 치유력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기도를 하며, 태양에게도 조시를 치유해 줄 것을 부탁한다.

이처럼 조시의 생명을 구하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클라라와는 달리 어머니인 크리시는 큰 딸인 샬을 향상 과정 중에 잃고도 조시의 향상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조시의 죽음까지도 예견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여 시내에 작업실이 있는 카팔디라는 남자에게 조시의 ‘초상화’ 작업을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초상화 작업은 엄마인 크리시가 조시의 죽음 이후에 클라라의 인공지능을 삽입하여 또 다른 조시로 만들어 자신의 딸을 삼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 중인 로봇의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었다. 가정부인 멜라니아는 그 작업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표시하며 “초상화고 지랄이고, 에이에프. 개새끼 씨를 똑바로 관찰 안 하면 조시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클라라와 태양』 165)라고 분노한다. 가정부의 분노 어린 당부에 클라라의 대답은 순진하리만큼 긍정적이다.

“하지만 제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조시는 튼튼하고 건강해질 거예요. 대학에 가고 어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이상은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시내에 가면 기회가 있을 거예요.”(『클라라와 태양』 263)

여기서 말하는 그녀의 계획은 소위 ‘초상화’ 작업을 위해 조시네 식구들과 시내에 가면 쿠팅스 머신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파괴하여 태양을 기쁘게 하면, 인위적인 작업으로 병에 걸려 죽어가는 조시를 자연의 치유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클라라의 소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클라라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프로그램 상의 알고리즘에 의해 지정된 로봇의 기계적 특성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모습이다.

초상화 작업을 위해서 시내에 간 조시는 자신을 “가장 좋아하는 야생동물”(『클라라와 태양』 275)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폴(Paul)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 폴은 어머니와 이혼했고, 공학자로 근무하던 곳에서도 로봇에 의해 대체되어 같은 처지의 인간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폴, 당신도 과학자니까 나하고 같은 생각일 거예요. 나는 에이에프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에이에프의 지적 능력을 겁내지 말아야 해요. 에이에프한테서 배워야죠. 배울 게 정말 많아요.”

“난 과학자가 아니라 공학자예요. 당신도 아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에이에프는 내 분야가 아니라서.”(『클라라와 태양』 293)

딸의 죽음을 예견하고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 유기적 생명체로서의 딸의 정체성을 지속시키고자 시도했던 크리스는 결국 카팔디씨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유기적인 생명체가 아닌 하나의 로봇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계획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은 과학과 기술의 힘을 상징하는 카팔디 씨의 거의 기만에 가까운 과도한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샬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전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샬을 가지고 만든 것은 인형이었어요. 애도 인형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이후로 아주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이걸 알아야 해요. 새로운 조시는 모조품이 아니에요. 진짜 조시가 될 거예요. 조시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요.”

“나더러 그걸 믿으라고요? 당신은 믿어요”(『클라라와 태양』 304)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어 제작한 다른 형태의 조시를 통해 딸과의 관계를 지속하려던 크리스와 카팔디 씨의 대화 중에 클라라는 다시 끼어들어 ‘자연스러운 치유’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그러면서도 클라라는 “그 슬픈 날이 절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날이 온다면 제가 배운 것을 모두 동원해 저 위에 있는 새로운 조시가 이전의 조시와 최대한 비슷해지도록 훈련하겠습니다.”(『클라라와 태양』 305)라고 말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결과로 유기적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마저 철저히 부인하는 카팔디의 말은 크리스를 계속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다.

“우리 세대는 여전히 과거의 감정을 지니고 살죠. 마음 한 편에서 그걸 붙들고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내면에 가닿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계속 믿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는 고유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건 없어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당신도 알고요. 우리 세대 사람들은 무언가 있다는 생각을 놓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버려야 해요. 그리시.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시 내면에 클라라가 계속 이어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조시는 모조품이 아니예요. 정확히 똑같은 존재니까 당신이 지금 조시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그 애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아니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되죠. 나도 그렇게 해야 했고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아주 좋아요.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클라라와 태양』 308)

매우 합리적이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기까지 한 현대 과학의 맹신자인 카팔디 씨의 당당한 주장은 유기적인 생명체로서의 자신의 딸에게 “최고를 주고 싶었”(『클라라와 태양』 312)지만 자신이 내린 결정 때문에 아프게 된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에 혼란과 죄책감을 주게 된다. 그 후에, 자신이 조시가 되고 나면 자신의 본래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느냐는 클라라의 질문에, 크리시는 클라라에게 돌아오게 될 여러 가지 이점을 나열하고 릭의 가족과 함께 멀리 떠나가서 살자는 말로 얼버무리는데, 클라라는 다시 크리시의 입장을 인정하며 그것이 더 나은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동조한다. 이러한 클라라의 태도는 한 편으로는 매사에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며 고집하기 보다는 타자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거기에 애써서 맞춰주는 이타적인 특성이 엿보이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는 주인의 입장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 된 로봇의 특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후 조시의 아버지인 폴과 조시의 역할을 대신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클라라는 그가 크리시나 카팔디 씨와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사람을 특별하고 개별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며 조시를 제대로 배우려면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조시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정될 수 없는 마음의 무한한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다(『클라라와 태양』 320). 이에 클라라는 “어딘가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클라라와 태양』 322)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조시를 구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언한다. 그리고는 ‘쿠팅스 머신’을 찾아서 파괴해야 태양의 도움을 받아 조시가 ‘항상’이나 ‘대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견상 비합리적으로 들리는 이러한 클라라의 주장에 폴은 “희망이란 게, 지겹게도 펼쳐 버려지질 않지.”(『클라라와 태양』 325)라고 말하며 신뢰를 보인다.

폴은 계속해서 자신이 카팔디를 미워하는 이유가 “마음 깊은 곳에 카팔디 말이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클라라와 태양』 329)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곧 현대 첨단 과학의 합리성과 편리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성의 상실을 우려하는 현대인의 불안과 불만을 표방하고 있는 언급이다. 그리고 작가인 이시구로는 인공지능 로봇인 클라라의 입을 통해 ‘인간다운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폴 씨의 말씀을 듣고 보니 더더욱 카팔디 씨가 제안하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시가 건강해지도록 할 수 있다면 초상화도, 제가 조시를 학습하는 일도 불필요해지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부탁드립니다. 쿠틡스 머신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 수 있을지 조언해 주세요. 폴 씨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클라라와 태양』 330)

클라라는 폴에게서 쿠틡스 머신을 무력화시킬 “P-E-G 나인(Nine) 용액”(『클라라와 태양』 329)이 자신의 몸 안에 들어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추출하여 쿠틡스 머신을 무력화시키기로 결심한다.

한편, 조시 가족과 동행했던 릭의 어머니 헬렌은 아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이혼한 전 남편 밴스(Vance)를 만나기로 한다. 그녀 역시 크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녀의 후회는 크리스와는 달리 자신이 향상을 시켜주지 않음으로써, “릭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다”(『클라라와 태양』 349)는 것이다. 이제 그녀는 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27년 전에 헤어진 그녀의 남자 친구이자 “유전자 편집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까지도 받아들일만큼 개방적이고 관대한”(『클라라와 태양』 361) 애틀러스 브루킹스 대학교의 설립자 위원회 의장인 밴스에게 청탁을 하고자 한다. 헬렌의 태도가 못마땅한 밴스와 그녀의 아들 릭이 그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동안 폴은 클라라의 머리에서 뽑아낸 P-E-G Nine 용액을 근처의 쿠틡스 머신에 투입한다. 그러나 사실 그 도시에는 여러 대의 쿠틡스 머신이 더 있었고, 따라서 다른 기계에서 매연이 계속 뿜어져 나왔다. 물론 태양은 클라라의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았다.

결국 조시는 더욱 심하게 앓게 되고, 클라라는 다시 한번 태양과 담판을 지으러 갈 생각을 하게 된다. 맥베인 씨의 헛간으로 다시 가서 태양에게 특별한 호소를 하러 가기로 작정한 클라라는 이번에도 릭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하는 데, 그녀는 태양을 설득할 더 강력한 호소력을 확보하기 위해 릭에게 조시와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사랑인지”(『클라라와 태양』 391) 확인하고자 한다.

릭의 등에 업혀 맥베인 씨의 헛간에 간 클라라는 그를 돌려보낸 후에 태양과 독대하여 다시 한번 기도한다. 쿠틡스 머신에 자신에게 치명적인 액체를 빼내어 투입하게 함으로써 태양을 방해하는 공해의 주범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죄가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한 클라라는 다시 한 번 태양에게 조시의 목숨을 건져줄 것을 부탁하는 기도를 올린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착오이고 해가 저한테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하지만 조시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걸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처럼 조시도 해와 저의 약속에 대해서는 몰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시가 하루하루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온 까닭은 해가 얼마나 인자한 지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해가 거지 아저씨와 개에게 그랬던 것처럼 큰 연민을 보여주시기만 한다면요. 조시에게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특별한 자양분을 보내 주시기만 한다면요.(『클라라와 태양』 395-96)

일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는 인공지능 로봇 클라라의 기도문은 “행하고도 얻지 못하는 자는 모두 스스로에게서 모든 원인을 찾으시니, 한 몸이 바르면 천하가 돌아온다”는 맹자의 가르침³⁾을 떠올리게 하는 지극히 책임감 있고, 인간적인 성품을 보여주고 있으며, 거기다가 “해가 조시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기만 한다면”(『클라라와 태양』 396) 자신의 소중한 용액(P-E-G 9)을 “더 내줄 수도, 전부 다 내놓을 수도”(『클라라와 태양』 396) 있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 “둘의 사랑이 단단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보증”(『클라라와 태양』 398)할 수 있으니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조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녀에게서 심지어 메시아의 기개가 엿보이기도 한다.

공교롭게도 클라라가 태양을 향해 기도하던 맥베인 씨의 헛간 벽에는 “특별히 상냥한 양 네 마리”(『클라라와 태양』 397) 사진이 발견되는데, 이 사진은 ‘착하다’는 의미의 한자인 ‘선’(善) 자를 연상하게 한다. 착할 ‘선’ 자라는 한자는 양을 의미하는 글자(羊)의 아래에 입을 의미하는 글자(口)가 있고, 그 사이에 풀을 의미하는 글자(艸)가 삽입되어 ‘양에게 풀을 먹인다’는 뜻이 된다. 즉 진실한 선함, 또는 착한 행실은 자신의 유익이나 계산을 대 내려놓고,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헌신에 그 바탕을 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클라라의 기도와 크리스, 멜라니아, 그리고 릭의 정성스런 간호에도 불구하고 조시의 건강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크리스는 임박한 조시의 죽음 앞에서 릭에게 자신이 ‘향상’을 통해서 크게 성공하기를 바랐던 딸 조시가 죽게 되었는데, 조시보다 더 안전한 길을 택하여 현재까지 살아남은 릭에게 “승리자라고 생각해?” (『클라라와 태양』 406)라고 물으며 억지스러운 정도로 초라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크리스에게 릭은 조시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조시의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조시는 엄마를 사랑했다고,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자기 엄마여서 정말 고맙고 단 한 순간도 아니길 바란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향상을 택한 것에 대해서요.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걸 어머니가 아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클라라와 태양』 395-96)

3) 愛人不親 反其仁, 治人不治 反其智, 禮人不答 反其敬, 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 其身正而天下歸之. 『孟子』 . <公孫丑>

그러는 동안 해가 다시 떠오르고, 조시는 회복을 하게 된다. 클라라의 기도대로 해는 클라라를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났다.”(『클라라와 태양』 417) 이처럼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한 인공지능 로봇 클라라는 수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거절하는 법을 모른 채, 자신을 불미스런 목적으로 해체하여 활용하려는 카팔디 씨의 요청에도 “조시나 어머니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만 아니라면 저는 돕고 싶습니다...”(『클라라와 태양』 430)라고 응답한다.

“아뇨, 헨리. 안 돼요. 클라라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해요. 서서히 꺼질 수 있게 하는 게 마땅해요.”

“하지만 우리 임무가 있잖아요.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야 해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맞서요. 다른 블랙박스를 찾아서 열어요. 클라라는 내버려 뒹요. 서서히 꺼질 수 있게 해요.”

어머니가 나를 카팔디 씨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내 앞으로 와서 섰다.(『클라라와 태양』 430)

과학과 기술문명에 대한 맹신으로 말미암아 비인간화 되어가던 카팔디 씨의 욕망은 클라라의 지극히 인간을 닮은 정성에 감동하여 자신의 노선을 변경한 크리시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해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클라라보다 키가 더 커진 건강한 조시는 “넌 정말 최고였어 클라라. 정말로.”(『클라라와 태양』 434)라고 인사하며 대학의 기숙사로 떠나게 되고, 그에 대하여 클라라는 “나를 선택해 줘서 고마워요”(『클라라와 태양』 434)라고 작별을 고하게 된다.

모든 임무를 마치고 수명이 다하여 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던 고물 로봇이 된 클라라는 그곳에서 과거에 매장에서 자신을 관리하고 배려하며 보호해 주던 매니저를 만나게 된다. 그녀와의 대화에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었던 로봇 클라라는 자신과의 동류인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가장 중요하고 고유한 감정인 ‘관계’를 갈망하는 감정을 파악하지 못한 카팔디 씨가 “잘못된 곳을 찾았다”(『클라라와 태양』 442)고 말한다.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지만 조시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조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카팔디 씨가 틀렸고 제가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대로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클라라와 태양』 442)

결국 고도로 프로그램화된 인공지능 로봇인 클라라는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과 변화무쌍

한 환경들 속에서도 처음 가진 마음을 변경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해 배우며, 외부의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하에서 한결같은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지극한 선함을 보여준 감동의 캐릭터로 마무리되고 있다.

IV. 결론

소설을 비롯한 문학 작품들은 세계와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의 복잡다단한 상호작용과 역학관계에 대한 다양하고 상세한 묘사를 통해 독자가 실제 만나고 있거나 향후 지향하게 될 하나의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로버트 스콜스(Robert Scholes)는 이러한 문학의 가치에 대하여 "지혜와 진리의 보물창고"(12)라고 평가하며 문학 텍스트의 독해력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작품은 초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상상이 가능하여진 최첨단의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극히 비인간적인 인간'과 '너무나 인간적인 비인간'의 언행과 의식을 주요 소재로 하는 미래 시점의 소설작품이지만, 작품 속의 내용들은 이미 우리 사회와 인간들의 의식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불가피한 현실의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소위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디스토피아적 주제를 가진 공상과학 소설 또는 포스트휴먼 소설로서, 이 작품은 이미 많은 관심 속에 연구되어 오고 있다. 그중 상당수 논문들은 작품 속의 현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발달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타자'로서의 로봇 객체와의 공존의 문제를 연구의 중심 테마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작가 자신은 그의 작품의 의도가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대와 희열 또는 우려를 드러내거나 암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변화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존재하는 "관계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거리를 던지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서 그는 전작인 『나를 보내지 마』에서 주인공인 복제인간들의 통렬하면서도 장엄함 생애를 통해 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비애와 그에 대한 애도의 주제를 천착하였고, 이후에는 그 작품에 드리워진 슬픔에 대한 응답 또는 답변 같은 책을 쓰고 싶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클라라와 태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발달⁴⁾로 인한 소위 '향상'의 가능성은 인류에게 지대한 희망을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실패와 생명의 위협 때문에 인간은 그 대용물로 '인공지능 로봇친구'를

4) Garrett, Laurie. "Biology's Brave New World: The Promise and Perils of the Synbio Revolution." *Foreign Affairs*, vol. 92, no. 6, November/December 2013, p. 28-46. HeinOnline

만들게 되고, 마치 전작에서 ‘원본 인간’의 생명을 위해 수차례의 장기 적출을 마친 후에 그 생명마저도 ‘완료하게 되었던’(complete) 복제인간들처럼, 인간을 닮은 로봇들은 그 도구로 희생된다. 자신의 자녀에 대한 과도한 사랑으로 인하여 타자의 존재를 ‘실존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부류의 인간들과 그러한 왜곡된 삶을 견디지 못하는 또다른 부류의 인간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독자는 ‘자아’와 ‘타자’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받게 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이 작품을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의 발달과 그 영향, 그리고 그에 대처하는 현대 인류의 태도 사이의 역학관계를 성경을 비롯한 동서양 철학의 ‘선,’ ‘공동선,’ 그리고 ‘사랑’의 개념에 비추어 재조명해 보는 데 있다. 지속적으로 급속하게 발달하는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다양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선’의 기준이 다각화되고 판단의 근거가 모호해 진 경향이 있다. 본 작품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클라라의 눈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보자면, 우리가 추구할 진정한 선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모두에게 적용될 ‘공공선’이나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선’의 출발은 그리 크고 대단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마 10:42) 것과 같은 작은 정성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모든 일의 책임을 외부나 타인에게서 찾기보다는 자신에게서 찾는 ‘反求諸己’의 마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한 충성으로 시작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용』의 ‘其次致曲’의 가르침처럼 온전한 변화를 향한, 작고, 개인적이지만 지속적이며 연속적인 관계 맺음 속에서 꽃피워 가는 사랑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가르쳐주신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Lodge, David. 1992. *The Art of Fiction*. New York: Viking.
- Mejia, Santiago and Nikolaidis, Dominique. "Through New Ey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cal Unemployment, and Transhumanism in Kazuo Ishiguro's *Klara and the Sun*."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8 (2022): 303–06. Print.
- Rus, Daniela. "The Robots Are Coming: How Technological Breakthroughs Will Transform Everyday Life." *Foreign Affairs*. June 16, 2015.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15-06-16/robots-are-coming>
- Scholes, Robert E. *Textual Power*. New York: Yale University. 1985. Print.
- Schwab, Klau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Penguin Random House UK, 2017.
- Shaffer, Brian W. *Understanding Kazuo Ishiguro*. Columbia: U. of South Carolina P., 1998. Print.
- Swift, Graham. 1989. "Kazuo Ishiguro." *Bomb* 22–23, 29.
- Wong, Cynthia F. 1995. "The Shame of Memory: Blanchot's Self-Dispossession in Ishiguro's *A Pale View of Hills*." *CLIO* 24: 127–45.
- 孔子. 『論語』. 김석원 역해. 서울: 혜원출판사, 2001.
- 孟子. 『孟子』. 범선균 역해. 서울: 혜원출판사, 1997.
- 王應麟. 『三字經』, 양희룡 역해 (서울: 혜원출판사. 1999), p. 24.